



27일 개봉 영화 '1947 보스턴' 임시완

# “국대 마라토너 명절 흥행가도 달리고 싶어요”

“적어도 촬영하는 동안에는 정말 태극마크 달고 뛰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임하는 게 목표였어요. 극한까지 스스로를 내몰았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한국인이자 누구나 아는 위인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인 1947년, 태극 마크를 달고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동양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서운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영화 '1947 보스턴'에서 서운복을 연기한 배우 임시완은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납득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마주앉은 임시완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배우보다 선수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며 “대단한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각종 대회를 휩쓸던 마라톤 유망주 서운복은 달리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인양산과 무악재 고개를 타고 다니며 생계를 위해 각종 배달 일을 하던 것이 실력의 밑거름이 됐다.

## 해방 직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태극마크 첫 우승 서운복 그려 임 “배우보다 선수로서 삶 살아 실존 인물 연기, 큰 책임감”

그러던 어느 날 롤모델로 삼던 손기정(하정우 분)이 직접 그를 찾아온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을 제안하고, 서운복은 태극마크를 단 첫 번째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다.

임시완은 “서운복 선생님의 열정을 묘사하기 위해 저 역시도 배우로서 평소 애 갖고 있던 열정과 목표 의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탄탄하고 다부진 몸을 만들기 위해 8개월 동안 철저한 식단 관리를 했고,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6%대로 낮췄다.

옷통을 벗고 운동하는 장면을 위해서는 이를 동안 물을 끓이기도 했다.

임시완은 “단수를 하면 근육이 더 부각돼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며 “단 몇 초 분량이지만,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물을 안 마시니까 시야가 흐려지고, 앞도 잘 안 보였다. 아찔한 경험이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개인적인 연기 욕심이었죠.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으니 인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극한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연기를 시작한 임시완은 드라마 ‘미생’ (2014)의 장그래, 영화 ‘변호인’ (2013)의 진우,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6)의 현수, ‘비상선언’ (2022)의 진석 등을 연기해왔다.

어느덧 12년 차 연기자가 된 임시완은 요즘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제껏 제 목표는 뭐든 소화할 수 있는 백지 같은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술술 배우로서 저만의 색깔이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러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부분을 더 키워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 ‘K팝’으로 달군 뉴욕의 밤

BTS 정국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한국 솔로가수 첫 출연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오늘 밤 무대에 제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K팝의 거대한 물결이 토요일 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를 휩쓸었다. 곳은 날씨에우의를 갖춰 입은 관객들은 쌀쌀한 저녁 날씨에도 잊은 채 무대를 향해 열정적인 환호와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오후 센트럴파크에서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 삼아 열린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서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국제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여는 대규모 자선 공연이다. 극빈, 기아,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021년 이 행사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국보 송례문을 배경으로 ‘퍼미션 투 댄스’와 ‘버터’ 무대를 꾸민 바 있다.

정국은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 팝스타 로린 힐과 더불어 헤드라이너에 이름을 올렸다. K팝 솔로 가수가 출연한 것은 그가 최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정국의 차례가 되자 그 어느 무대보다 큰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의를 갖춰 입은 ‘어미’ (방탄소년단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막고 그의 등장을 반겼다.

정국은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등장해 솔로곡

‘유포리아’와 ‘스틸 위드 유’로 무대를 시작했다. 라이브 밴드의 반주에 맞춰 흘러나오는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성적인 멜로디는 가을에 잘 어울렸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정국은 환호하는 관객을 향해 영어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식량과 교육 같은 기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 솔로 데뷔곡이자 글로벌 히트곡 ‘세븐’ 이나오자 공연장에서는 ‘썩’하는 비명과 함께 ‘웨잇 오브 더 월드 온 유어 숄더스’ 하는 때장이 나왔다.

특히 이 무대에서는 ‘세븐’의 랩 파트를 담당한 래퍼 라토가 등장해 정국과 함께 무대를 꾸렸다. 정국이 ‘세븐’을 라토와 함께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국은 무대 말미에 새 디지털 싱글 ‘3D’ 발매 계획을 깜짝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개되는 ‘3D’는 닿을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1, 2, 3차원의 시선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알앤비(R&B) 팝 장르의 곡이다. ‘세븐’ 이후 한층 성숙해진 솔로 가수 정국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정국의 신곡 발표는 지난 7월 ‘세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그는 ‘세븐’으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솔로 팝스타로 부상했다.

/연합뉴스



## 권상우 “한강경찰대 이야기 새로울 겁니다”

디즈니+ 시리즈 ‘한강’ 열혈 경사 역...유람선 좌초 후 사건 다뤄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을 한강경찰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을 자주 다뤘지만, 한강경찰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보일 것 같았죠.”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은 한강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한강에서 벌어진 범죄를 파헤치

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배우 권상우(사진)는 유쾌하고 다혈질이지만도 정의감 넘치는 한강경찰대 소속 한두진 경사를 연기했다. 드라마에서 한두진은 한강 유람선 테러 대응 훈련에 테러범 역할로 동원된 데 격분해 싸움을 벌이는 사고뭉치이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열혈 경찰이다.

권상우는 인터뷰에서 “촬영 과정에서 한강경찰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다”며 “한강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경찰대) 고충이 아주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며 “드라마 ‘한강’이 많이 사랑받으면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키워서 한강경찰대의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강’은 새로 취향한 대규모 한강 유람선이 좌초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한두진과 동료 경찰들은 기술어린 배에서 모든 승객을 무사히 구해낸다.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스타덤에 오르고, 이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2004) 드라마 ‘대물’ (2010) 등의 잇단 흥행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말죽거리 잔혹사’로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대중상 남자인기상,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도 받았다. 권상우는 다작을 해왔어도 여전히 흥행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늘 낭떠러지 끝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다만 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만큼 항상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